

Key to Success on the TOEFL 발간사

이 토플 시험 준비 과정은 4 권의 책, 13 개의 interactive multimedia CD-ROMs, 및 MP3 files 과 audio tracks 의 두 방식으로 저장된 12 개의 Audio CDs 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 학습 및 숙달 연습 과정 중의 듣기와 말하기 연습편 (Listening and Speaking Practices)인 제 1 권에는 4 개의 CD-ROMs 및 4 개의 Audio CDs 가, 기초 학습 및 숙달 연습 과정 중의 문법편(Structure and Written Expression), 읽기 연습편(Reading Practices), 및 쓰기 연습편(Writing Practices)인 제 2 권에는 2 개의 CD-ROMs 및 2 개의 Audio CDs 가, 듣기와 말하기, 문법, 읽기 및 쓰기의 실전 연습편(Practice Tests)인 제 3 권에는 5 개의 CD-ROMs 및 4 개의 Audio CDs 가, 듣기와 말하기, 문법, 읽기 및 쓰기의 종합 모의 시험편(Complete TOEFL Exam)인 제 4 권에는 2 개의 CD-ROMs 및 2 개의 Audio CDs 가 딸리어 있다.

이 교재의 출판 기획과 학습 방법은 다른 교재들과는 크게 다르다.

이 TOEFL 시험 준비서를 기획한 경위와 저술 방식 및 그 학습 방법은 다른 유사한 교재들과는 크게 다르다.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발간사이다. 동시에 이 글은 필자가 1945 년에 영어를 배우기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영어를 배우고, 가르치면서 겪어 온 수많은 좌절과 고민, 몸부림과 노력, 그리고 수많은 실패와 성공 사례가 농축(濃縮)된 경험담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글이 필자 혼자서만 겪은 경험담을 쓴 것은 물론 아니다. 여기에 쓰인 내용은 외국어 교수법에 관하여 세계 여러 저명 학자들이 주장하는 이론과 방법, 대뇌 생리학자들의 학습 이론 그리고 여러 나라 언어에 정통했던 세계 저명 인사들의 경험을 필자가 실험 교육 과정에서 적용해 본 결과 탁월한 효과가 있었던 방법만을 소개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글은 한국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살면서 영어 원어민과의 접촉이 많지 않은 영어교사나 영어 학습자, 그리고 자녀들의 영어 공부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영어 학습의 성공을 기약할 수 있는 교재의 요건

필자는 TOEFL 시험 준비 교재뿐 아니라 모든 영어 학습 교재가 응시자나 학습자의 성공을 기약할 수 있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집필자가 외국어나 제 2 언어로서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을 가르친 경험이 풍부할 뿐 아니라 TOEFL 등을 위시한 영어 시험의 출제에 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전문가라야 한다.

둘째, 학습자가 자기 수준과 학습 속도에 맞춰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을 선별적으로 학습하면서 TOEFL 시험 준비는 물론 영어의 기본 실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꾸며진 교재라야 한다.

셋째, 한국 영어 학습자들의 공통적인 오류와 취약점을 찾아내어 이를 발견 학습적 접근법(heuristic approach)으로 발본색원할 수 있는 최첨단의 상호 작용식 다중 매체 이용 교재라야 한다.

넷째,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어휘, 문법 및 영어권의 문화 이해 등에 이르기까지 영어 숙달에 필수적인 모든 언어 기능(技能)을 높은 수준으로 향상 시킬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출제 유형의 빈번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향후 시행될 모든 TOEFL 시험, 나아가서는 그와 유사한 모든 영어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전천후적(全天候的) 학습 활동(Study Activities), 응용 연습(Practices), 종합 모의 시험(Complete TOEFL Exam) 및 숙달 훈련(Proficiency Drills) 등의 학습 및 연습 자료가 풍부하게 수록되어야 한다.

여섯째, 세계 99 위[2002년에는 109 위였다]에 머물고 있는 한국인의 평균 TOEFL 성적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한국인에게 가장 적합한 TOEFL 준비서가 되어야 한다.

Key to Success on the TOEFL 의 개발 배경과 저자

첫째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TOEFL 시험 문제를 다년간 꾸준히 연구하고 분석하여 응시자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을 속속들이 찾아내어 그에 대처하는 전략과 전술을 제시할 수 있는 저자를 찾아내는 일이다. 필자는 1981 년 이래 Oxford University Press(OUP)를 위시한 해외 저명 출판사의 우량 영어 교재 중 한국인에게 적합한 교재를 선정하여 각급 학교에 보급하는 동시에 국내외의 저명한 영어 교재 저술가들의 원고를 편집하여 출판하는 일에 종사해 온 덕택으로, 이런 자격을 구비한 저자에게 TOEFL 시험 준비서의 저술을 위촉하는 행운을 얻게 되었다.

필자는 OUP 에서 출판한 Ronal E. Feare 의 저서 *Practice with Idioms* 를 번역, 주해하고 그 해답집을

써서 출판한 적이 있었고 또한 그가 OUP 에서 출판한 **Key to Success on the TOEFL** 과 **Key to Success on the TOEFL Practice Tests** 를 국내에 보급하는 일을 해 왔는데, 이런 일들이 인연이 되어 OUP New York 사장의 소개로 아래와 같은 조건하에 Ronald E. Feare 와 (주)외국어연수사간의 저작권 사용 계약이 체결될 수 있었다:

1. 그가 OUP 를 통해서 출판한 TOEFL 시험준비서 **Key to Success on the TOEFL** 과 **Key to Success on the TOEFL Practice Tests** 를 집필하던 방식은 살리되 그 내용은 향후 예상되는 출제 경향에 맞추어 완전히 새로 쓸 것이며, 특히 한국인의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a)** 그가 집필하는 영문 원고를 작성되는 대로 필자에게 보내 주면 필자는 그 원고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필요한 해설과 주석을 붙일 것; **b)** 한국 학생을 대상으로 그 원고로 실험 교육을 실시하되 한국 학생 특유의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각 이를 저자에게 통보하고 그 해결 방안에 대한 필자의 의견도 제시할 것; **c)** 저자는 필자가 통보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원고 작성에 최대한으로 반영할 것.

2. **a)** 이 준비서 원고 집필을 시작하기 전에 출제된 모든 TOEFL 시험 문제는 물론 집필 과정에 출제되는 모든 새로운 출제 유형을 원고 작성에 반영할 것이며; **b)** 저자 자신도 그가 영어를 가르치고 있던 San Diego State University 산하의 American Language Institute 에서 그 원고로 실험 교육을 실시하여 계속 원고를 수정 보완해 줄 것.

이 교재의 저자 R. E. Feare 는 어떤 사람인가?

이 교재의 저자 Ronald E. Feare 는 San Diego State University 부설인 American Language Institute(ALI)의 Program Coordinator 와 Senior Instructor 를 역임했으며, 지난 25 년간 ESL 과정을 가르치면서 TOEFL 과 TOEIC 교재를 개발하고 그것들을 ALI 의 ESL 과정에서 실험 교육을 해 왔다. 그는 또한 OUP 가 발행한 **Practice with Idioms** 와 Addison Wesley Longman 이 발행한 **Everyday Idioms for Reference and Practice 1-2** 권을 집필하여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았으며, TOEFL 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영어 시험인 **G-TELP**(the General Tests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를 창시하여 그 주요 저자로서 활약하고 있는데 **G-TELP** 는 우리나라에서도 TOEFL 과 더불어 공인되어 있는 영어 시험이다. 그의 저서 **Practice with Idioms** 는 우리나라의 10 여 출판사가 해적판으로 찍어내 엄청나게 많은 부수가 팔렸던 책이라 이 책으로 처음 **phrasal verbs** 와 **idioms** 의 문법 구성과 용법을 익혔던 사람들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할 것이다. 그는 9 년 여에 걸친 이 TOEFL 교재의 개발 과정에서 실험 교육과 집필에 온 정력을 기울였을 뿐 아니라, TOEFL 시험이 **Computer-based TOEFL** 로 바뀐 후에는 그 자신이 직접 세 번이나 TOEFL 시험에 응시한 성의를 보였으며 필자의 기획팀도 응시할 것을 요구했다. 수험생의 입장을 체험해 봄으로써, 이 준비서에 출제할 문제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여담이지만 저자는 TOEFL 시험의 주관 기관인 ETS 의 위촉을 받아 TOEFL 문제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사전에 검토해 주는 출제 분야의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공교롭게도 세 번 응시할 때마다 모두 한 문제씩 틀렸다고 필자에게 알려 왔다. 종전에는 이런 전문가들의 TOEFL 시험 응시는 허용되지 않았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TOEFL 시험도 100%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하튼 필자가 그와 같이 성실한 영어 시험 출제 전문가를 만나게 된 것은 한국의 영어 학도들을 위해서도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며, 그에게 마음 속 깊이 감사하고 있다.

(주)외국어연수사의 상호작용식 다중매체 영어 교재 개발 과정과 배경

이 교재가 **둘째**에서 **여섯째**까지의 요건을 비교적 많이 충족할 수 있었던 것은 필자가 1981 년 이래 (주)외국어연수사를 통해 한국인에게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여러 종류의 영어 교재를 출판했던 경험과 **실용외국어학원**에서 한국인에게 가장 적합한 영어 교수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자와 함께 실험 교육에 참여한 국내외 여러 석학들의 협조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주)외국어연수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ELLIS (English Language Learning & Instruction System) 제품을 보급하는 과정에서 ELLIS, Inc.의 창시자인 Frank Otto 박사의 후의에 의해 (주)외국어연수사의 산하 기관인 실용외국어학원을 Interactive Multimedia English Language Learning and Instruction 의 시범 교육장으로 개편하여 모든 ELLIS Programs 의 실험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필자는 이것을 계기로, Feare 교수의 TOEFL 시험 준비서 원고를 번역 주해한 후 ELLIS Program 을 표준으로 삼아 Interactive Multimedia Program 으로 개발하였다. 그리고 개발 중이던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 교육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원저자에게 알려 그의 원고 집필에 반영 시켰다. 이 과정에서 얻은 경험도

성공을 기약하는 영어 교재의 여러 요건들을 충족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이 교재의 기획과 개발 과정에서는 원저자 이외에도 필자에게 도움을 주었던 분들이 많았다. 그 중에서도, 대뇌생리학과 교육심리학에 조예가 깊은 William Maxwell 교수의 조언, 영어의 발음과 철자 규칙을 최초로 집대성하여 *Sound Spelling Harmony of the English Language* 라는 정교한 체계를 완성한 Paul V. Griesy 교수의 협조 그리고 서강대학교 영어교육연구소를 창설 발전시킨 John Harvey 교수의 도움에 힘입은 바가 컸다. 이 세 학자들은 모두 한국어와 한국인의 영어 교수법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한 분들이어서 그들의 조언은 필자에게 참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 준비서가 다른 TOEFL 준비서와 크게 다른 점을 요약하면 한국인의 영어 학습상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에 주안점을 둔 것인데, 그 구체적인 방법을 부연하면 아래와 같다:

한국인의 영어 학습상 문제점과 그 해결책에 주안점을 둔 교재

첫째, 영어 학습에서 한국인이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는 언어 기능인 **Listening** 과 **Speaking** 의 훈련에 중점을 두다. TOEFL 시험 자체도 금년 9 월부터 Internet-based TOEFL(iBT TOEFL)로 바뀌면서, **Speaking** 이 새로 생겨 **Listening** 및 **Reading** 과 같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고, **Writing** 도 종전과는 달리 **Reading**, **Listening**, **Speaking** 과 동등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거니와 **Reading** 조차 **Listening** 과 **Speaking** 에 연계되기 때문에 영어를 **듣고 말하는** 기능과 영어로 **글을 쓰는** 과제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필자가 TOEFL 시험 준비서를 이런 방향으로 기획한 것은 한국인의 영어 교육에 관한 문제점을 해결 해보겠다는 필자의 오랜 염원에서 나온 것이지만, **Internet-based TOEFL** 을 미리 예견하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지만, TOEFL 시험 자체가 끊임없이 그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여 왔기 때문에 필자가 추구해 오던 방향과 시기적으로 일치된 것이다.

둘째로, 문법-번역 중심, 강의 중심의 수동적인 학습 방법을 지양하고 문맥적 속독 및 즉독직해(即讀直解)의 접근법으로 먼저 부여된 과제를 스스로 해결한 후 나중에 어구 해설, 예문, 문법 해설, 문제 해결의 전략적 조언과 해설을 읽는 방식으로 공부하도록 교재를 편성하였다. 환언하면, 교사 중심의 수동적 학습 방식에서 학습자 중심의 자율, 발견 학습 방식으로 바뀌려고 노력한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준비서의 모든 원고를 **Interactive Multimedia Program** 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컴퓨터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책과 **audio CD** 도 만들었다.

셋째로 이 교재 그 이름이 **Key to Success on the TOEFL** 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한국인의 전반적인 영어 실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려는 학습서로 꾸민 것이다. 그래서 이 교재가 TOEFL 시험 전략서의 한계를 넘어, 영어의 언어 기능 전반에 대한 기본 실력 양성과 숙달 훈련에 중점을 둔 것인데, 9 년 여의 개발 과정을 거치다 보니 TOEFL 시험 자체가 필자가 추구하던 방향으로 바뀌게 되자, 원저자도 크게 만족하여 영어의 기본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제 해결 및 숙달 훈련 문제를 많이 집필해 주었고, 특히 한국인에게 절실히 필요한 **듣기와 말하기, 듣고 받아 쓰기** 훈련용 원고를 엄청나게 많이 작성해 주었을 뿐 아니라, 원저자 자신이 동료 교수와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 듣기, 말하기, 듣고 받아 쓰기의 삽화로서 사용될 사진의 등장 인물의 선정 및 촬영 배경의 준비 그리고 그 대본을 녹음할 성우의 선정과 녹음 과정까지 직접 지휘하여 방대한 사진 자료와 녹음 자료를 보내왔다. 참으로 그의 협조에 감사하는 바이다. 필자가 하필이면, 왜 TOEFL 교재를 이용하여 한국인의 영어 실력 향상에 기여하는 교재를 만들려고 했는지 궁금한 독자도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필자는 1981 년 이래 한국인의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많이 펴냈으나 그것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았다. 한국 학생들은 각종의 시험 준비로 여념이 없으니 시험준비서 이외의 좋은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 그래서 기왕에 시험 준비를 할 바에는 TOEIC 같은 상업 영어 중심의 독해-청취 시험과는 달리, 광범한 학문 분야에 걸친 내용을 소재로 영어의 전반적인 언어 기능을 골고루 다 시험하는 TOEFL 시험의 준비서를 만드는 것이 첩경이라고 생각했거니와, TOEFL 시험 자체의 성공을 위해서도 시험 전략의 숙달에 못지않게 영어의 기본 실력 향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교재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자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준비서는 TOEFL 시험 뿐 아니라 TOEIC, SAT, GRE, TEPS, 대입 수학능력고사, G-TELP 또는 그 밖의 영어 시험 준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교재는 TOEFL 시험 준비과정의 강의용으로도 쓸 수 있도록 구성했지만, 영어의 기초 실력이 부족한 영어 학습자들의 자습에 더 적합하도록 꾸민 것이다. 따라서 모든 지문(地文)은 물론 각 문항의 지시문(指示文), 문제 해결의 전략 설명, 어구 및 어법 해설, 그리고 선택 답안의 문장이나

어구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문을 영영한(英英韓)으로 대역(對譯)함으로써, 영영사전, 영한사전, 영문법 참고서 등을 읽는 데 소비하는 시간을 대폭 절약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모든 문장과 단어 및 어구의 번역은 지나친 의역을 피하고 독자가 번역문을 통해서 그 글의 뜻뿐 아니라 구문도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영어의 한글 표기는 영어의 발음에 가장 가까운 한글 표기법을 썼다.

그리고 영어를 한국어로 표기할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외래어 표기법을 따르지 않고 영어의 발음에 가장 가까운 한글 표기법을 썼다.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외래어 표기법은 일본 사람들이 일본 문자로는 표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어와는 대단히 거리가 먼 외래어 표기를 해 오던 것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 대부분이다. 우리말로써는 영어의 원음과 거의 동일하게 표기가 가능한데, 구태여 일인들의 잘못된 발음을 우리의 외래어로 써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최소한 필자가 집필하는 영어 학습 참고서에서만이라도 영어와 가장 가까운 한글 표기법을 써서 학생들이 잘못된 일본식 영어 발음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싶었다. 예를 들면 니스는 바니시로, 바나나는 버내너로, 카나다는 캐너더로, 도마도는 터메이토로, 아스파라가스는 어스패러거스로 표기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정확하고 상세한 영영한 대역 주해서는 영어 공부에 대단히 큰 도움을 준다.

필자의 학창 시절에는 세계 명작의 훌륭한 영일(英日) 또는 영한(英韓) 대역서(對譯書)가 많았다. 그런데 요즘은 원로 석학들이 저술한 영한 대역서는 보기 드물다. 요즘 나온 번역서들을 보면 원문과 너무 거리가 멀거나 풍부하고 친절한 주석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영어 선생의 과외 지도나 학원 수강에만 의존하는 학생들은 훌륭한 영한 대역서가 영어 공부에 얼마나 크게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를 것이다. 필자가 도와 준 많은 학생들은 필자가 구해 준 옛날의 영한 대역서와 개발 중이던 이 교재의 원고만으로 모두 자력으로 TOEFL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다. 현재 중학교 1학년인 한 학생은 최근에 응시한 CBT TOEFL 시험에서 278점을 받았으며, 캐너더에 유학 중인 한 고등학생은 개발 중이던 이 교재만으로 만점에 가까운 득점을 했다. 영어 학습자들에게 도움을 줄만한 영영한 대역 주해서가 부족한 현 실정을 감안하여, 필자는 이 교재가 TOEFL 시험 준비 뿐 아니라 영어 공부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심오한 학술서를 역주하는 자세로 번역과 주석에 임했고, 조금이라도 의문이 있으면 원저자인 R.E. Feare 교수와 상의하였음은 물론 필자가 존경하는 Paul V. Griesy 교수, John Harvey 교수, William Maxwell 교수에게도 자문을 구했다. 이 기회를 빌어 이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러나 필자의 영어 공부가 모자라 오류를 범했거나 부족한 점도 있을 것이다. 독자 여러분의 기탄 없는 비판과 질정(叱正)을 바란다.

Interactive Multimedia Program 인 이 TOEFL 교재의 학습 방식과 기능

영어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기능과 학습방식을 이 **Interactive Multimedia TOEFL CD-ROM** 교재에 도입했는가는 이 글 다음에 나오는 **How to Use the Interactive Multimedia Program**에 자세히 설명해 두었으므로 여기서 그 중요한 기능만을 아래에 소개한다.

1. Testing Mode 에서 **예비 시험**을 치러 학습자가 자신의 문제점을 인식하도록 했으며, 정답을 제시하지 못한 문제만을 다시 묶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때까지 계속 문제를 풀도록 했다.

2. Practice Mode에서는 함정에 빠지지 않고 이 문제들을 푸는 **전략, 어구 해설, 문법 설명**, 모든 지문의 **번역문** 들을 철저히 학습한 후 **Record and Play, Role Play, Transcribing** 등의 기능을 이용해 **Listening, Speaking, Writing** 및 **Reading Skills** 를 연마하도록 했다. 이 중 **Transcribing** 은 필자가 오랜 실험 교육을 거쳐 개발한 방법으로 이 교재의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이므로 다음 항에서 자세히 서명한다.

3. Transcribing Exercises(轉寫練習)은 영어의 모든 기능 향상에 놀라운 효과가 있다.

Transcribing Exercises(轉寫練習)는 **Top-down** 과 **Bottom-up Approach** 의 청해 과정을 통해 전사(轉寫)한 영문의 문형을 **proster (program structure)**로서 대외에 구축하는 학습 방법이다. [대뇌생리학자 **Leslie Hart** 의 **Proster Theory** 는 후술한다.] 이 연습을 통해서 영어의 문맥적 청해, 문법, 어휘, 작문 및 문맥적 독해의 실력을 기르며, 의미 집단(**sense group**) 별로 듣고 이해하는 능력을 길러 **이해 가능 단어 집단의 범위(範圍)를 확장(擴張)**하는 동시에 **LISTENING** 과 **SPEAKING** 의 **속도(速度)**를 **증가(增加)**시키도록 했다. 이 방법은 필자가 처음 개발하여 최근에 출시한 Listen for It 에 사용했고 이 TOEFL 준비서에 두번째로 사용하였다. **Blank-Filling Exercises** 는 **Interactive Multimedia Programs** 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지만 **지문(地文) 전체를 완전히 받아 쓰는 전사(轉寫) 방식**은 없었다. 필자는 실험

교육 과정에서 한국의 영어 학습자들이 영어의 지문을 **sense group** 별로 듣거나 읽지 않고 개개의 단어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독해나 청해(聽解)의 속도(速度)가 느리다는 것을 발견했다. 필자의 실험 교육 과정에서 **초급 수준의** 학생들이 Transcribing Exercise 에서 보여 주었던 예를 하나 들어 보겠다. ELLIS Program 중 Intro 에 나오는 대화를 학생들에게 받아 쓰게 했더니 실험 교육에 참가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음과 같이 문맥과 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을 썼다:

"They're a gift to Jamie."라는 문장을 "There gift to Jamie."라고 쓰거나 "Their gift to Jamie"라고 쓴 것이다. 그렇게 쓴 이유는, 그들이 **They are** 의 단축형 **They're** 의 발음이 "there" 또는 "their"와 같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들리는 소리는 "there"나 "their"와 같으니까 자신들에게 익숙한 **there** 나 **their** 로 받아 쓴 것이다.

구문(構文)에 대한 기초적 지식만 있어도 문장의 기본 요소인 주어와 동사가 없으니 문장으로 성립될 수 없음을 알았을 것이 아닌가? **gift** 라는 가산 명사 앞에 부정 관사 **a** 가 빠져 있는 것도 초보적인 문법 지식이 없음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이 이 정도로 영어 문법의 지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는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범하는 것이다. 이러한 **silly mistakes** 는 문법, 단어, 문장 해석 등을 분리해서 배운 학생들이 범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다음은 **중급 수준의** 학생이 이 교재의 CD-ROM 중에서 다음 문장을 듣고 전사(轉寫)한 것이다:

녹음된 문장: Affluent citizens chose the **comfort and safety** of the **suburbs** over the **crime** of **downtown**.

받아쓴 문장: Affluent citizens chose the **comfortable safety** of the **suberbs** over the **climate** of **down town**.

마지막으로 영어 수준이 **상당히 높은** 학생의 전사 연습의 예를 들어 보겠다:

녹음된 문장: This trend is **slowly changing**, however, as **city governments make an effort** to revitalize **downtown areas and attract** the affluent back.

받아쓴 문장: This trend is **changing slowly**, however, as **the city government tries** to revitalize **the downtown areas in order to** attract the affluent back.

이 학생은 녹음된 문장을 3 회 들어 본 후 대의를 파악하고 자신의 작문 실력으로 위와 같이 전사(轉寫)했다. 즉 개개의 단어를 받아 쓴 것이 아니라 전체 문장의 대의를 파악한 후 자신의 영작문 실력으로 옮겨 쓴 것이다. 이 정도의 수준이면, multiple choice 나 multiple response questions 에서 정답을 정확히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Writing** 이나 **Speaking** 에서는 어휘의 부적절한 선정과 문법적 오류(誤謬) 때문에 감점(減點)을 받을 수 있다. 녹음(錄音)된 글과 받아 쓴 글을 비교해 보면, **slowly changing** 이 changing slowly 로, 대표 복수인 **city governments** 가 특정한 시정부를 의미하는 단수의 the city government 로, **make an effort** 라는 어구가 유사한 의미인 tries 란 동사로, 대표 복수인 **downtown areas** 가 특정 또는 총체적 개념인 the downtown areas 로, "make an effort ... and attract"의 구문 형식을 "tries ... in order to"의 구문 형식으로 바꾸어 놓았다. 아마 **Try to do something**. 대신에 **Try and do something**. 을 쓰는 구문 형식을 잘 몰랐거나 이론으로는 알지만 실제로는 숙달 연습 부족으로 **proster** 로 구축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정도의 수준에 이른 사람이라면 이 **Transcribing Exercise** 를 통해서 자신의 회화 표현력과 바른 작문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전사 연습(轉寫練習 Transcribing Exercises)의 놀라운 효과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 Transcribing Exercise 의 목적은 대의 파악과 세부적 내용의 이해에 주안점을 둔 **Listening Skills** 의 향상에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적절한 어휘 선택과 정확한 문법 지식에 토대를 두고 바르고 유창하게 말하는 능력(**Speaking Skills**)과 바르게 글을 쓰는 능력(**Writing Skills**)도 아울러 향상시키자는 데 있다. 영어 논술 시험에서는 문법적으로 정확한 글을 쓰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고 주제에 적합하게 자신의 견해를 이로 정연하게 전개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논술 방법은 영어와 국어에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한국 학생들은 요즘 논술 공부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그 방법이 서툴어서 득점을 못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이론을 이로 정연하게 전개했다 할지라도 단어의 선정(**diction**)이 부적절하고 문법적 오류(**grammatical errors**)가 많은 글을 써 놓으면, 논술 내용과 이론 전개 방식을 평가하는 시험 위원들의 주관식 채점 이전에, 컴퓨터로 실시하는 어휘 선정과 문법적 오류의 채점에서 많은 감점을 받을 것이다. 한국 수험자들의 문제는 영어의 문법에 맞는 글을 못 쓰는 데 있으므로 이 준비서의 **Transcribing Exercises** 를 충실히 연습하면, **Listening** 은 물론이고, **Writing** 과 **Speaking** 에서도 고득점이 보장될 것이며, 한걸음

나아가 **Reading Skills** 의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성결대학교의 송민종 교수는 논술 지도의 부산물로 독해력도 향상되었다는 실험 결과를 금년 7 월 중국 연변에서 열린 국제영어교육학술회에서 발표했다. 이 전사 연습을 할 때는 녹음된 문장을 끝까지 들은 다음 그것을 문맥적으로 이해하고 기억하여 재현하는 방식으로 전사(轉寫)한 후에 몇 번이고 다시 들어 보면서 세부적인 오류를 고쳐나가야 한다.

4. 문법과 어휘의 실력 없이는 IBT TOEFL 시험에서도 성공할 수 없다.

앞으로 시행될 Internet-based TOEFL 에는 문법 지식과 어휘력에 관한 부문이 없어지지만, Reading, Writing, Listening, Speaking 부문에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문법에 관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것들은 전술한 4 대 언어기능의 기반이 되어 있으므로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이 교재에는 문법과 어휘의 학습 재료가 풍부하게 들어 있다. 그러나 여느 TOEFL 준비서처럼 주 학습자료와 연습 문제에 직접 관련이 없는 문법이나 어휘를 따로 분리해서 지루한 해설을 한 곳은 전혀 없고 모두가 수록된 지문과 문제를 문맥적으로 즉독(即讀) 직해(直解)하는 데 필수적인 문법 지식만을 다루었다. 그러나 특히 한국 학생이 오류를 범하기 쉬운 항목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예문도 풍부하게 제시했다. 그리고 문법과 어휘력 학습의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학습 시간을 최대한으로 단축하기 위해서 상세한 어구 해설과 아울러 예문, 문법설명, 질문, 지시문, 선택 답안, 전략 조언, 내용 해설과 전 지문(地文)의 완전한 영영한(英英韓) 대역문(對譯文)을 제시하여 사전이나 문법책을 참고하는 수고를 덜도록 하였다. 또한 중요한 단어는 그 어원을 제시하였으며, 이 교재에 나오는 약 2,000 여의 난해한 어구에는 국제음표문자로 발음을 표시하는 동시에 원어민의 녹음도 제공했다. 이것도 **Comprehensible Information** 을 언어의 **prostere** 로 전환하려는 시도(試圖)의 일환(一環)이다.

5. Edward Gibbon 식 영작문 연습

The Decline and Fall of the Roman Empire 라는 불후의 명저를 쓴 영국의 역사가 Edward Gibbon 은 라틴어를 불어로 번역한 후 얼마 지난 후에 자신의 불어 번역문을 라틴어로 다시 번역하고 라틴어 원문과 대조하면서 오류를 정정했다고 한다. 이 방법에 따라 전사(轉寫)한 영문을 국역하여 저장하고 1~2 일 후에 그 번역문을 영역하여 영어 원문과 대조해 보는 연습을 하면 영작문 실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6. Record and Compare 와 Role Play 기능은 Speaking Skills 를 양성하는 핵심 과정이다.

Speaking Skills 의 향상을 위해 지문과 대화를 녹음하고, 재생한 후, 원어민 녹음과 비교하는 **Record and Compare** 와 등장 인물의 대화나 담화 및 강의를 녹음-재생을 통해 연출하는 **Role Play** 기능을 넣었다. **녹음은 큰 목소리로** 하는 것이 **Speaking Skills** 의 향상은 물론 영어 문형의 **proster (program structure)** 구축에도 크게 도움을 준다. Ohio University 의 Harold E. Byrd 와 H.G. Beck 교수의 실험에서 단어를 **큰 소리로 읽고 암기**한 편이 **묵독(默讀)**보다 **34%** 더 많이 **기억(記憶)**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단시일에 여러 외국어에 정통한 독일의 고고학자 Heinrich Schliemann 도 이 방법을 썼다.

7. 영어에 정통하는 지름길은 안락한 분위기에서 실시하는 숙달 훈련(Proficiency Drills)이다.

Speaking, Listening, Reading, Writing 의 4 대 기능 향상을 위한 숙달 훈련(Proficiency Drills)을 **Listening, Role Play** 및 **Transcribing** 의 3 부로 나누어서 수록했다. 이 숙달 훈련은 주로 **우뇌적 학습법**을 사용하여 영어의 문형, 문화적 배경, 철자, 발음 등에 관한 **proster** 를 두뇌에 구축하려는 시도이다. 따라서 이 숙달 훈련을 할 때는 개개의 단어, 문장 구조, 문장의 의미, 철자, 발음 등의 세부적 요소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감상하듯이 긴장을 풀고 편안한 마음으로 연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 숙달 훈련은 **Testing Mode** 와 **Practice Mode** 에서의 학습 활동을 마친 후에 **쉬는 시간을 활용**하여 **10 분 내지 15 분** 정도 하는 것이 좋다. 우뇌학습법의 권위자인 시나가와 요시아 교수는 언어 학습 과정을 자동차의 작동에 비유하면서 우뇌 활용법을 이렇게 설명 한다. 자동차의 운행을 원활히 하자면 **급발전(急發進)**은 금물이고 **warming-up** 이 필요하며, 가속이 붙은 후에 급제동을 걸면 엔진이 서버리듯이, 인간의 두뇌도 **급발전과 급제동(急制動)**은 금물이며, 맹렬한 학습 전후에는 **완만(緩慢)한 warming-up** 과 **fade-out** 가 필요하다고 한다. Marathon 의 경우도 이와 같아서 출발 단계에서는 속도를 내지 않으며 결승선 진입 후에도 운동장을 서서히 달리지 않은가? 이 숙달 훈련은 결승선 진입 후에 **track** 을 달리는 것과 같은 **마무리 작업**이고 우뇌(右腦)로 **proster** 를 두뇌에 각인(刻印)하는 과정이다. 우뇌 학습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후술한다.

8. 영어의 기본 실력은 어휘력이다. 지위가 높을수록 어휘력이 뛰어났다는 조사 보고도 있다.

Search button 을 눌러 2,000 여 개의 단어와 숙어를 찾아 보고 그 정의와 예문, 철자와 발음 그 어휘의 용법 등을 문맥적으로 철저히 익히도록 했다. Print 하는 기능을 포함 시켰으니 학습이 끝날 때마다 그것을 인쇄해서 모으면 훌륭한 단어장이 될 것이다. 단어학습 중 가장 좋은 방법은 이미 학습한 단어를 모아 자투리 시간에 꺼내 보는 것이다. 단어는 한 두 번 기억한다고 자기의 것이 되지 않는다. 최소한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21 회 그 단어가 쓰인 문장과 함께 되풀이해서 기억을 재활성화 해야 그 단어들이 Active Vocabulary 로 정착되어 작문 회화에 활용될 수 있다. 기억의 효율에 관해서는 후술하는 기억 心理學의 창시자 Ebbinghaus 의 이론을 참고하라.

그러면 여기서 이 TOEFL 준비서 발간의 배경과 이 교재의 학습법에 관한 설명은 접고 이 교재의 학습뿐 아니라 효과적 영어 학습에 관한 필자의 소견을 좀더 자세히 밝히고자 한다. 이 글을 참을성 있게 끝까지 읽어 두면 독자 여러분의 영어 공부 방향이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고 TOEFL 시험뿐 아니라 다른 어떤 영어 시험에서도 성공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TOEFL 시험에서 성공하자면 먼저 부단한 실전 연습으로 영어의 달인이 되어야 한다.

미국의 어느 제철회사에서 용광로 고장으로 작업이 중단되자 사내 기술진을 총동원하여 수리를 시도했으나 실패하였다. 그래서 용광로 수리로 유명한 수리공을 불렀다. 그 수리공이 망치로 한 곳을 세게 치자 용광로는 즉각 작동되었다. 공장장이 수리비를 물으니 100 불을 요구했다. 그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망치로 한대 친 값이 100 불이냐고 반문하고 수리비의 내역서를 요구했다. 수리공은 내역서에 이렇게 썼다: 망치로 용광로를 친 노임 1 센트; 어디를 칠 것인지 아는 know-how 99 불 99 센트.

이 용광로 수리공처럼 어느 분야의 달인(達人)이 되려면 부단한 실습과 체험을 통해 그 분야에서 성공하는 비결 즉 know-how 를 체득(體得)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이 실습과 체험은 훌륭한 스승의 지도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뒷받침되어야 최단 시일 안에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 용광로의 수리공도 훌륭한 장인(匠人) 밑에서 부단한 도제 수업(徒弟修業)을 통해 정비 기술을 체득했을 것이다. 영어 공부도 이와 다를 바가 없다. 학습 자료 자체가 양질의 것이어야 함은 물론, 그 자료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두뇌에 입력하는 비법을 체득해야 하고, 가장 효과적인 숙달 연습 방법으로 그 정보를 유지 관리해야 하며, 그 정보가 필요할 때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활용하는 비법을 익혀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학습활동의 구비구비마다 험난한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으므로 무작정 시간과 돈을 많이 들여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그것을 극복하는 비법들을 모두 체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이 비법들을 찾아내 그것을 전수하기 위해 노력해온 훌륭한 스승들의 가르침을 바로 배워 이것을 꾸준한 숙달 연습을 통해 각자 특유의 학습 비법으로 완성해 나가야 달인의 경지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이 교재는 언어 교육 전문가들의 가르침과 언어에 달통하는 비법을 체득했던 달인(達人)들의 경험을 활용하여 독자들이 실전 연습을 통해 TOEFL 시험에서 성공할 뿐 아니라 영어의 달인(達人)이 되는 know-how 를 능동적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엮어 놓은 것이다. 이 점도 다른 TOEFL 시험 준비서와는 크게 다른 점이다.

영어를 잘 하는 사람도 TOEFL 시험에 성공하려면 준비가 필요하다.

무슨 시험에서든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 응시하는 시험의 특성과 출제 유형을 숙지(熟知)하고 그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해야 함은 물론이다. TOEFL 시험도 예외가 아니므로, 현재 시행 중인 Paper-based TOEFL 과 Computer-based TOEFL 이나 명년 5 월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될 예정인 Internet-based TOEFL 의 출제 경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대비하지 않으면 비록 영어에 자신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자기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가 없을 것이다.

12 년 전에, 미국의 저명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수학하려던 한 청년이 아무 준비 없이 TOEFL 시험을 치렀다가 낭패를 당하고 필자를 찾아왔다. 그가 유학하려던 대학교에서는 장학금을 주는 조건으로 630 점 이상의 TOEFL 성적을 요구했는데 TOEFL 의 Listening Section 에서 크게 실패하여 장학금은 고사하고 입학 자체가 재고될 지경에 이르렀다. 그는 서울의 명문 대학교 영문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후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까지 다 마치고 그 대학의 영어강사로 재직 중이었는데, 박사 학위만은 미국의 명문 대학에서 받으려고 했다. 필자가 그에게 TOEFL 준비서로 시험 공부를 해 본 적이 있었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TOEFL 준비서 따위는 거들떠 본 적도 없다고 했다. 그래서 필자는 이 TOEFL 준비서의 저자가 Oxford University Press 를 통해서 출판했던 Key to Success on the TOEFL 과 Key to Success on the TOEFL Practice Tests 를 추천해 주면서 이 책으로 준비를 한 후에 다시 응시해 보라고 했다. 그는 수개월이 지난 후에 필자를 찾아 와 그 책 덕택으로 재도전한 TOEFL 시험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받았다고 했다. 이것은 무슨 시험을 치르던 자신의 실력만 믿고 준비 없이 응시하면 큰 낭패를 본다든 것을 입증하는 한 예에 불과한 것이며, 기초 실력이 없는 사람이 시험 준비서만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얻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TOEFL 시험 성공의 열쇠는 영어의 기본 실력을 꾸준히 향상시키는 데 있다.

8년 전, 한 젊은이가 TOEFL 시험에 관한 조언을 들으려고 필자를 찾아왔다. 그는 미국의 모 대학교 석사과정에 입학원서를 냈는데, **600 점** 이상의 TOEFL 성적을 요구 받고 3 번이나 TOEFL 시험에 응시했으나 세 번 다 600 점 미만의 성적을 받아 고민하고 있었다. 그는 응시할 때마다 사전에 2 개월 과정의 TOEFL 강의를 수강했는데도 시험성적은 1 점도 더 올라 가지 않았다. 그는 6 개월에 걸친 TOEFL 시험 준비로 TOEFL 의 출제 유형에는 정통해졌겠지만 어휘력, 독해력, 청취력, 문법 등, 영어의 기본 실력 향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어떤 외국어에 정통하려면 그 외국어를 정확(正確)하고 유창(流暢)하게 구사(驅使)할 수 있는 주요 언어 기능을 부단한 연습을 통해서 향상시켜야 하는 것이지 주입식 강의의 수강만으로 외국어 실력이 향상될 수는 없다. 그래서 학습자 자신이 무수한 연습을 통해서, 영어의 전반적 기본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Interactive Multimedia CD-ROM 교재를 추천해 주었다. 그는 다시 도전한 TOEFL 시험에서 **625 점**을 받고 미국 유학의 길을 떠났지만, 첫 강의 시간에는 강의 내용을 완전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유학 중에도 그 교재로 계속 청취력 향상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했다.

TOEFL 625 점 수준으로도 미국 대학 강의는 완전히 알아듣지 못한다.

미국의 일반 대학교에서는 PBT TOEFL 550 점이면 입학할 수 있고 있으니 PBT TOEFL 625 점을 얻은 사람이 미국 대학의 강의를 거의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렵다고 생각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PBT TOEFL 550 점(CBT TOEFL 213 점; iBT TOEFL 79-80 점) 수준이면 대학 부설 영어학원에서 상당 기간 영어교육을 받아야 제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다.

10 여년 전으로 기억되는데, 배두본 교수가 우리나라 대학교 영어 교수들의 외국 유학 중 영어 강의 이해도(理解度)를 조사하여 영어학회 학술지에 기고한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이 되었던 영어 교수들 중 상당수가 첫강의에서는 강의 내용을 60% 이상 이해하기가 힘들었다는 응답을 했고, 어떤 교수는 30% 정도 밖에 이해할 수 없었다고 했으며, 어떤 교수는 유학을 마칠 때까지도 강의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없었고, 조사 당시까지도 영어의 청해(聽解)에는 자신이 없다고 응답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이것은 SPEAKING 과 LISTENING SKILLS 의 양성을 외면하고 문법과 독해에만 치중해 왔던 영어 교육이 초래한 필연적인 결과였을 것이다.

Internet-based TOEFL 등장 배경과 그 대책

TOEFL 은 미국 대학교의 수학 능력 측정으로는 가장 많은 신뢰를 받고 있으나, Paper-based TOEFL 은 영어 실력을 정확히 반영해 주지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TOEFL 을 만든 ETS 에서는 TOEFL 시험의 타당도(Justifiability)와 신뢰도(Reliability)를 높이기 위하여 끊임 없이 출제 유형을 수정하고 개선해 왔으며, 1997년부터 Computer-based TOEFL 을 도입하여 Paper-based TOEFL 과 Computer-based TOEFL 을 병행하고 있거니와, 금년 9 월에 미국에서 처음 시행한 Internet-based TOEFL 에서는 SPEAKING 을 추가했을 뿐 아니라 그것을 LISTENING 및 READING 과 연계(連繫)하여 SPEAKING SKILLS 를 평가하고, LISTENING 도 READING 과 연계하여 학문 연구 환경에서의 LISTENING 능력을 평가함으로써 TOEFL 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이려 하고 있다. 또한 Internet-based TOEFL 에서는 Structure and Written Expression 을 없애고 LISTENING, SPEAKING, WRITING 을 중시하여 READING 과 똑같이 각각 30 점씩을 배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려면 Grammar-Translation 에 치중해 오던 한국의 영어 교육도 SPEAKING 과 LISTENING SKILLS 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Interactive Multimedia English Language Learning & Instruction 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Internet-based TOEFL 에 관한 상세한 정보와 Test Sample Questions 는 ETS 의 website 인 <http://www.ets.org/toefl/nexgen> 에 나와 있다. 이 책에서는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이 글 바로 다음에 따로 항목을 설정하여 현재 시행 중인 Paper-based TOEFL 과 Computer-based TOEFL, 그리고 앞으로 시행될 Internet-based TOEFL 의 특성을 설명하였다.

한국인 응시자의 TOEFL 성적이 세계 99 위인 까닭은 무엇인가?

2004년 10월 1일의 조선일보와 KBS1 방송은 2002년에 시행된 TOEFL 시험의 한국인 응시자 평균 성적이 세계 109위로 CBT 207 점에 불과했다고 보도했는데, 그 이유는 한국의 응시자들 중에 어린 학생들이 끼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2005년 11월 14일자 매일 경제에 따르면 그 순위가 99위로

올랐다. 그러나 이런점들을 고려하더라도 그 성적은 노력에 비해 너무 낮다.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중-고등학교 영어 교사들 중에는 학생들의 영어 수준을 밑도는 교사들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명년부터 iBT TOEFL 이 시행되면 그 순위가 다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인의 영어 교육에서 Speaking, listening, Writingd 의 교육과 훈련이 아직은 미흡하기 때문이다.

언어 심리학자 김병원 교수는 1987 년에 서울의 모 명문대학교 대학원생 33 명을 대상으로 Institutional TOEFL 시험을 치르게 한 후 그들의 성적을 분석하고 그 내용의 일부를 그의 저서 "**왜 영어를 잘 못하는가 (Why Can't Koreans Have a Better Command of English?)**"에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Listening Comprehension:

Short statements: **44.4 %**
 Short Conversations: **32.7%**
 Talks and Lectures: **47.7%**

Structure and Written Expression:

Sentence completion: **66.3%**
 Grammatical errors: **69.2%**

Reading Comprehension

Vocabulary: **67.8%**
 Reading Comprehension: **62.1%**

위 분석을 보면, 문법과 독해의 실력에 비해 청해(聽解), 특히 짧은 대화의 이해력이 지극히 부족하다. 명년 5 월부터 실시될 iBT TOEFL 에서는, SPEAKING 이 추가되고 LISTENING 이 강화되는 한편, WRITING 까지 LISTENING, SPEAKING, READING 과 동일하게 30 점을 배정하고 있으며, 그나마 한국인이 비교적 좋은 성적을 받아오던 Structure and Written Expression 이 없어질 것이니, 한국인의 TOEFL 시험 준비는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할 것이다. 끊임없이 평가 방법이 바뀌고 있는 TOEFL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전략적 해법에만 급급하지 말고, 영어의 기본 실력을 꾸준히 양성하는 것이 TOEFL 시험에서 성공하는 지름길이다. 특히 의미 있는 단어군의 범위를 넓히고 LISTENING 과 SPEAKING 의 속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TOEFL 시험에서 성공하는 비결이다.

TOEFL 과정 수강과 그 전략 습득만으로는 TOEFL 성적의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

TOEFL 을 만든 ETS 의 조사에 따르면, Computer-based TOEFL 에서 총성적을 30 점 더 올리는 데는 아래 표와 같이 각 단계마다 최소한 **300** 시간의 집중 학습이 필요하다.

Internet-based TOEFL scores	Computer-based TOEFL scores	Paper-based TOEFL scores	30 점을 더 받기 위한 학습시간	상위 단계로 올라가는 누계 학습 시간
30-40	93-120	397-433	300 시간	↓
41-52	123-150	437-473	300 시간	300 시간 ↓
53-64	153-180	477-510	300 시간	600 시간 ↓
65-78	183-210	513-547	300 시간	900 시간 ↓
79-95	213-240	550-587	300 시간	1200 시간 ↓
96-110	243-270	590-637	300 시간	1500 시간 ↓
111-120	273-300	640-677		1800 시간

위 표를 보면 CBT TOEFL 93-120(PBT TOEFL 397-433) 수준의 응시자 가 미국의 대학 입학 평균 수준인 CBT TOEFL **213-240**(PBTTOEFL **550-587**) 수준으로 올라가려면 **1200** 시간의 학습이 필요하며, 최상위 등급인 Computer-based TOEFL **273-300** (PBT TOEFL **640-677**) 수준으로 올라가려면 **1800** 시간의 학습이 필요하다. 이것은 많은 시간의 효과적 집중 학습 없이 TOEFL 준비 과정 수강만으로는 쉽게 TOEFL 성적의 향상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해 준다.

TOEFL 문제 해법 숙달과 영어 실력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재의 필요성

우리나라가 국제 저작권 협정에 가입하기 전까지만 해도 TOEFL 시험에 이미 출제된 문제를 이용하여 만든 TOEFL 시험 준비서가 많았으나, 이 협정 가입 후에는 TOEFL 에 출제된 모든 문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기출 TOEFL 문제를 많이 변형하거나 서투르게 짜맞추어 급조한 TOEFL 준비서가 시중에 범람하게 되었다. 이런 실정을 보면서, 필자는, TOEFL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자면, 무엇보다 먼저 TOEFL 시험과 같은 종류의 시험 문제 출제와 교육 및 저술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저술가가 집필한 시험 준비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통감해 왔다. 그뿐 아니라 TOEFL 시험 해법 숙달에 못지않게 영어의 기본 실력 향상이 TOEFL 시험 성공을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준비서의 발행을 기획하고 그 집필을 1996 년에 Ronald E. Feare 교수에게 의뢰하였다.

빈번한 출제 유형 변화에 대비하는 전천후 Interactive Multimedia 교재의 필요성

전술한 바와 같이 필자는 Feare 교수에게 위촉하여 1996 년부터 당시에 시행되던 Paper-based TOEFL 에 토대를 두고 이 작업에 착수했던 것인데, 1997 년부터 Computer-based TOEFL 이 실시되어 Paper-based TOEFL 과 병행하여 시행되자, 필자는 Paper-based TOEFL 시험에 대비해서 만들었던 원고를 Computer-based TOEFL 형식에 맞춰 Interactive Multimedia CD-ROM 으로 개발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런 후에도 TOEFL 시험의 출제 유형은 해마다 바뀌고 있었거니와, ETS 에서는 미래형으로 Computer-based TOEFL 2 를 개발 중이며 여기에는 SPEAKING 이 추가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어 왔다. 그래서 아예 Computer-based 2 에 대비해서 SPEAKING 기능과 기타의 많은 Multimedia 영어 학습 기법을 추가하여 TOEFL 출제 유형이 어떻게 바뀌든 상관 없이 그에 대비할 수 있는 준비서를 만들기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때마침 필자는 당시에 이미 Interactive Multimedia Language Learning & Instruction System 으로 세계적인 각광을 받고 있던 ELLIS (English Language Learning and Instruction System) 교재를 우리나라에 도입하여 국내 여러 대학교와 기업체에 보급하는 한편, 필자가 경영하던 영어 학원에서 실험 교육을 하고 있던 중이었으며, Oxford University Press 에서 출판한 *Listen for It* 신판을 Interactive Multimedia CD-ROM 으로 만들고 있던 중이었으므로, 이런 경험들이 TOEFL 준비서를 Interactive Multimedia Program 으로 제작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특히 ELLIS 는 TOEFL, TOEIC, SAT, SCANS, CASA, IPT TEKS, MT 등의 영어 시험뿐 아니라, Oxfo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University Press, Scholastic, Prentice Hall, Longman, Addison Wesley, Macmillan, Houghton Mifflin, Scott, Foresman, Harcourt Brace, Hampton Brown, Macmillan /McGraw-Hill, Rigby 등 저명 출판사의 대표적 영어 교재와 상호 관련시켜(correlate) 개발된 교재였으므로, 출제 유형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전천후식(全天候式) 시험 준비서 개발에서 벤치마크(benchmark)로 삼기에 안성맞춤이었다.

다양한 효과적 방법의 활용이 가능한 Interactive Multimedia Learning System

19 세기 중엽 이래 지금에 이르기까지 외국어 학습에 대해서는 실로 다양한 이론과 방법들이 제창되어 왔다. 행동주의 심리학, 인지 심리학, 기억 심리학, 구조주의와 변형생성 문법 이론, 비교언어학, 응용언어학, 대뇌생리학 등 실로 다양한 분야에서 수 많은 언어 학습에 관한 이론이 등장했으며 이 이론들을 실행하는 방법으로서도 가장 오래된 문법-번역식(文法-翻譯式) 교수법(Grammar-Translation Method)에서 시작하여 직접 교수법(Direct Method), 상황적 언어 교수법(Situational Language Teaching), 청화식(聽話式) 교수법(Audiolingual Method), 전신반응(全身反應) 교수법(Total Physical Response-TPR), 묵시적(默示的) 교수법(the Silent Way), 의사소통 중심 언어 교수법(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상호작용식(相互作用式) 교수법(Interactionist Method), Lozanov 의 우뇌 기반(右腦基盤) 암시 학습법(Suggestopedia), 그 발전 형태인 Desuggestopedia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이 등장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교수법이 등장할 때마다 그 방법을 한 동안 채택하기도 하지만 곧 새로운 방법에 실망하고 교사와 학생들에게 익숙한 종래의 방법으로 되돌아 가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위에 열거한 교수법을 교육 현장에서 시험해 보면 각기 한 두 가지의 장점은 있으나,시공(時空)을 초월해서 또한 누구에게나 만병통치 식으로 적용되는 방법이란 있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 이 많은 교수법들의 장점을 모두 활용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정된 시간의 교실 수업만으로는 이 교수법들이 제시하는 장점을 다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Interactive Multimedia Language Learning System 을 이용하면 이 방법들의 많은 장점들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문법-번역식 학습법도 상호작용식 다중매체 프로그램에서는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

Stephen Krashen 은 이해 가능 입력(comprehensible input)이 언어의 이해(comprehension) 와 습득(acquisition)의 충분 조건은 아닐지라도 필요 조건이라고 주장한다. Krashen 의 이론은 특히 북미의 상호 작용식 교수법의 신봉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으나, 그 후 많은 현장 교사들의 반론에 봉착했다. 영어 교육에서 문법과 어휘의 훈련을 등한시한 상호 작용식 교수법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문법과 어휘의 교육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2003 년에 정현숙 교수가 한 학술지에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Whole Language Theory 의 영향을 받은 영어 교사들은 문법과 어휘의 교육이 영어 교육에 유해하다는 극단적인 주장을 펴면서 문법과 Phonics 의 교육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정교수가 조사한 영어 교사 양성 과정의 영어 교사 출신 대학원생 34 명은 전원(100%)이 문법 교육의 금지에 강력히 반대하였다. 최근에는 영어 교육에서의 모국어 사용 금지, 문법 및 Phonics 수업 경시 등은 잘못된 주장이라는 학술 논문이

영국과 유럽 등에서 나오고 있으며, 영어 상용 국가들에서도 Phonics 교육 선풍이 강력히 일고 있다. 필자도 20 여년에 걸친 실험 교육에서 문법, Phonics, 어휘의 학습과 모국어의 번역 제공 등이 탁월한 효과를 올리고 있음을 체험했다. 그런데 다수의 모든 학생들에게 제한된 시간에 전혀 생소한 언어를 위에서 소개한 여러 교수법의 장점들을 활용하여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초인간적 능력을 지닌 교사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교실 수업의 한계점이다. 그러나 Interactive Multimedia Language program 의 발달로 이것이 가능해졌다.

인지 심리학자들은 "말하고 이해하는 것"의 자동적 수행을 가능케 하는 지식 체계의 구축이 제 2 언어 습득의 첩경이라고 주장한다.

How the Brain Works 의 저자 Leslie A. Hart 의 Proster Theory 에 따르면 언어의 습득과 사용은 특정 언어에 특유한 program structure (proster)와 수많은 subordinate prosters (subprosters)를 대뇌피질의 언어야(言語野)에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그것들을 상황에 맞춰 자동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이라 한다. 따라서 학습하는 언어 특유의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공간적, 시간적 prosters 의 지식 체계를 이해 가능 입력(comprehensible input)을 통해 대뇌에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수한 반복 연습이 필요할 것이다. 모든 기능(技能)의 습득이 끊임없는 반복 연습으로 이루어지거니와 특히 언어적 prosters 의 구축에는 엄청난 회수의 반복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동일한 행동의 기계적 반복은 흥미(興味)를 잃게 하고 흥미의 상실은 학습 능력의 저하를 가져 오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에 의사소통 중심의 언어 교수법에 많은 영향을 미친 Stephen Krashen 은, 그의 감정적(感情的) 여과장치(濾過裝置) 가설(假說) (The Affective Filter Hypothesis)에서, 언어 습득자의 감정이 긴장(緊張), 분노(憤怒), 초조(焦燥) 또는 권태(倦怠)의 상태(狀態)에 있을 때는 감정적 여과 장치가 언어 습득의 필요 조건인 이해 가능 입력(comprehensible input)을 차단(遮斷)하기 때문에, 그것을 언어 습득에 이용할 수 없다고 한다. Krashen 은 또한 그의 저서 *The Power of Reading: Insights from the Research (Research Methods)*에서 그의 Pleasure Hypothesis concept 를 근거로 free voluntary reading (FVR) (자유로운 자발적 독서)가 읽기, 쓰기, 철자, 이해력 등을 증진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뇌생리학자 Leslie Hart 가 그의 저서 *Human Brain and Human Learning* 에서 설명하는 Proster Theory 의 이론적 근거와 일치한다. Hart 는 인간의 뇌는 파충류적인 뇌와 포유류적인 뇌 및 인간의 뇌의 3 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 언어의 습득 같은 지적 활동은 주로 인간의 뇌인 대뇌피질에서만 이루어지며, 파충류적인 뇌와 포유류적인 뇌는 감정을 관장하는 뇌라고 한다. 그런데 인간이 분노, 긴장, 초조, 권태 등의 부정적 감정에 빠질 때는, 인간의 뇌가 작동되지 않고 파충류적-포유류적 뇌가 작동하여 투쟁 또는 도피의 반응(fight or flight response)을 나타낸다고 한다. 언어의 Prosters 를 대뇌에 구축하려면 무수한 반복 연습이 필수적인데 끊임없는 반복은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여 인간의 뇌의 활동을 중단시키고 동물의 뇌를 작동시키기 때문에 언어의 습득이 지장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율배반적인 요구를 해결하려면,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되 학습자가 흥미를 잃지 않도록 반복할 때마다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지능 수준과 동기가 각기 다른 다수인을 상대로 교사가 이런 방법을 사용하기는 어렵지만, 개개의 학습자에게 각자의 학습 능력에 따라 학습 재료(材料)와 그 사용 시간(時間)의 선택권이 주어지는 interactive multimedia program 을 이용하면 이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다. 필자가 Paper-based TOEFL 로 개발된 자료를 interactive multimedia program 으로 전환한 것은 TOEFL 이 Computer-based TOEFL 로 바뀐 것에도 그 이유가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영어 학습의 효율을 크게 높이자는 데 있었다.

장자(莊子)의 달생편(達生篇)에 나오는 연달자연(練達自然)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인지심리학자들은 "말하고 이해하는 것"을 자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지식 체계의 구축이 제 2 언어 습득의 첩경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술한 Leslie Hart 의 Proster Theory 나 후술하는 Ebbinghouse 의 실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지극히 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된다. 장자의 연달편(練達篇)에도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일화가 나와 있다.

공자(孔子)가 초(楚) 나라에 갔더니 한 노인이 숲속에서 매미를 잡고 있었다. 장대 끝에 끈끈이를 붙여 그것을 공중에 휘둘러서 매미를 잡는데 마치 땅 위에 떨어진 물건을 줍는 것처럼 수월하게 수 많은 매미를 잡는 것을 보고 공자(孔子)가 물었다. "매미 잡는 솜씨가 훌륭하시군요. 무슨 비결(秘訣)이라도 있습니까?" "있고 말고요. 매미가 한창 나올 무렵인 5, 6 월에 장대 끝에 매미만한 흙덩이 두개를 올려 놓고 그것들이 떨어지지 않을 때까지 연습하면, 몇 마리만 놓치고 다 잡습니다. 3 개를 겹쳐 놓고도 떨어지지 않게 되면 10 마리 중 1 마리만 놓칩니다. 다시 연습을 거듭하여 5 개를 겹쳐 놓고도 떨어지지 않으면, 땅에 떨어진 것을 줍듯이 간단히 모두 잡게 됩니다.

이 경지에 이르면 천지간(天地間)의 모든 것이 눈에 들어 오지 않고 오직 매미의 날개만이 염두(念頭)에 남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지에 이르면 무슨 일이든지 안 되는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장자(莊子)가 말하는 **연달자연(練達自然)**이다. 이것은 끊임 없는 반복 연습만이 숙달(熟達)을 가져온다는 진리를 강조한 이야기이지만, 위에서도 누누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인간의 심성은 반복을 싫어하는데 언어의 숙달은 반복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 이 상반되는 요구를 어떻게 충족시켜야 할 것인가?

근접 반복 억제 (the constraint on proximate repetition—CPR)의 원리와 영어의 구조

서울대학교의 박남식 교수는 그의 근저 Looking into the Structure of English —Studies in Structural Rhythm and Relativity 에서, 영어의 구조 자체가 인간의 심성을 반영하여 발음, 철자, 구문, 및 의미 등의 여러 국면에 걸쳐서 인간의 심성에 반하는 변칙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있음을 심층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특히 그는 반복을 기피하는 인간의 심성이 영어의 구조를 규제하고 있는 현상을 CPR 라고 명명하고 있는데, 이 CPR 의 원리로 비춰보면 지금까지 무미 건조하게 기계적으로 암기해 왔던 수많은 영어의 발음과 철자 규칙 및 관용적 표현들이 명쾌하게 이해된다. 아래에 독자의 흥미를 끌만한 CPR 의 예를 몇 가지 인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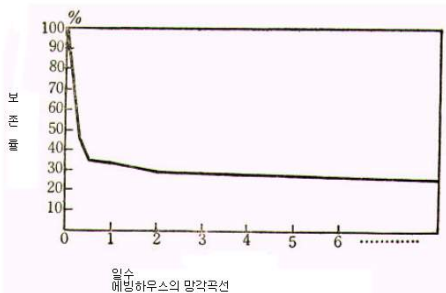
- (1) 단축형 a: do +n't →don't; does +n't →doesn't; did+n't→didn't; could+n't→couldn't
단축형 b can+n't→*cann't→can't. 단축형 b 는 CPR 가 작용해서 근접 반복된 n 하나가 탈락했다.
- (2) 단축형 a: There is a lot of snow here. →There's a lot of snow here.
단축형 b: There are many hotels here. →?There're many hotels here. There is ...→There's...는 바른 단축형이나 There are ...→?There're 는 re're 가 CPR 위반이므로 불가하다. 같은 원리로 Here's, Where's 는 좋지만 Here're, Where're 는 CPR 위반이므로 피해야 한다.
- (3) 단축형 a: That is mine. →That's mine. 단축형 b: This is mine. →*This's mine. *This's mine 은 . CPR 위반이므로 불가하다. 같은 원리로, 단축형 Mine is better.는 좋지만 *His's better.는 CPR 위반이므로 불가하다.
- (4) 단축형 a: That book is yours. That book is hers. That book is theirs. That book is ours.
단축형 b: *That book is hiss. 단축형 a 에 속하는 문장들은 바르지만 단축형 b 의 문장은 *hiss가 CPR 위반이라 불가하다.
CPR 의 원리는 철자와 발음에만 적용되지 않고 영어의 모든 표현에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 원리라고 한다. 따라서 그것은 시간적, 공간적, 규범적, 지시 대상적, 개념적, 인과 관계적 근접 반복 에도 적용된다고 한다.
- (7) a: Julius Caesar was assassinated in 44 BC. Emperor Nero was born in AD 37.
(7) b: My father passed away in (?AD) 1950. My daughter was born in (?AD) 1970. (7) b 는 시간적 CPR 위반이기때문에 (?AD)첨가가 부적합하다.
- (8) a: She settled the refugees in California.
(8) b: She settled (?herself) in California. (8) b 에서는 지시대상의 근접성 때문에 ?herself 를 제거했다

박교수의 평생에 걸친 심오한 연구 성과를 짧은 지면으로 소개할 수는 없지만, 그의 연구는 영어 교육에서 봉착하고 있는 "반복의 필요성과 반복으로 인한 흥미 상실" 이라는 이율 배반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는 탁월한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반복을 기피하는 성향이 인간의 언어 구조에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으니 인간의 심성에 역행하는 반복 연습이 얼마나 부질 없는 일이겠는가? 그러므로 언어 학습의 성패를 좌우하는 열쇠는 부단한 반복 연습을 계속하되 흥미를 잃지 않도록 반복 방법에 변화를 주어 흥미를 유지시켜주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억 심리학과 대뇌생리학의 이론에 기반을 둔 상호작용식 다중매체 이용 학습법

기억심리학의 창시자인 Ebbinghaus 는 무의미한 음절(音節)의 암기(暗記)와 망각(妄却)에 관한 실험 결과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20 분 이내	47%	망각
2 일 후	66%	망각
6 일 후	75%	망각
31 일 후	79%	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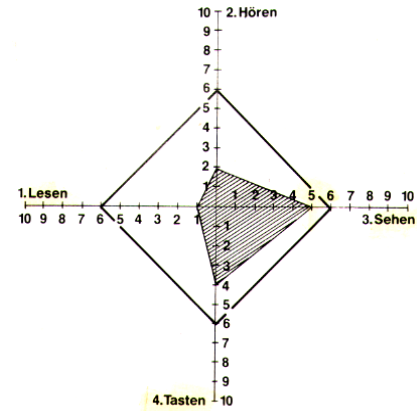


무의미한 음절을 기계적으로 암기시킨 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의 보존률(保存率)을 측정해 본 결과, 기억 후 20 분 이내에 47%가 망각되고 2 일 후에는 66%가 망각되며, 6 일 후에는 75%, 31 일 후에는

79%가 망각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망각을 막으려면 기억된 것의 망각이 급속도로 시작되기 전에 즉 20 분 이내에 다시 되풀이해서 기억시키되, 순향억제(順向抑制 progressive inhibition)와 역향억제(逆向抑制 retroactive inhibition)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일정한 휴식을 취한 후에 즉 시간적 간격을 두고 21 회 이상 반복해야 기억된 정보의 보존률이 높아진다고 했다. 위에서 소개한 대뇌생리학자들과 기억 심리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언어 학습에 있어서는, 학습 의욕을 북돋는 최적의 감정 상태에서 이해 가능 정보를 흥미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무수히 반복 입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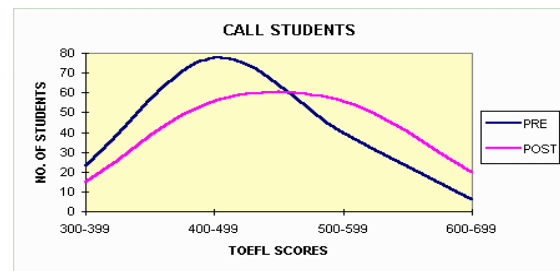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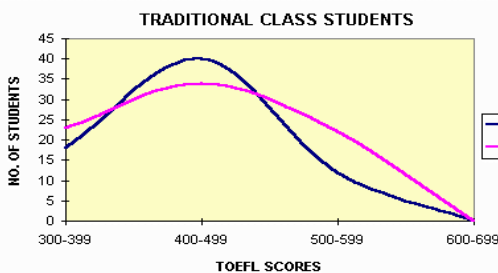
상호 작용식 멀티미디어 교육의 이론적 근거

Frederic Vester 교수는 그의 저서 *Denken, Lernen, Vergessen—Was geht in unseren Kopf vor, wie lernt das Gehirn, un wann läßt es uns im Stich?* 에서 감각 기관의 학습 효율에 관하여 주목할 만한 연구를 발표했다. 그는 이해 가능한 정보를 다중 감각 경로(多重感覺經路)를 통해서 학습할 때 그 사고(思考)와 학습 과정이 가장 효과적이며, 학습에 이용되는 감각경로에 따라 아래 도표와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주장했다. 이 도표를 보면, 어떤 정보, 예를 들면 어떤 단어를 읽어서(Lesen) 학습하면 1의 효율을 올릴 경우에 그것을 들어서(Hoeren) 배우면 2의 효율을 올리고, 만져 보고(Tasten), 예를 들어, 연필로 쓰거나 타자로 치면서 배우면 4의 효율을 올릴 수 있고, 실물(實物)이나 영상(映像)을 보고(Sehen) 배우면 5의 효율을 올릴 수 있는데 이 모든 감각 경로를 다 동원해서 배우면 승수효과를 발휘해서 12 이상의 효율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어를 배우는 경우에도 먼저 이해 가능 입력 즉 단어나 문장을 눈으로 읽어 보고, 귀로 그것을 들어보며, 그 영상(映像)과 말을 시청(視聽) 하며, 손으로 그것을 받아 써 보고 입으로 녹음(錄音) 해 본 후 재생(再生) 하여 원어민(原語民)의 발음과 비교해 보며, 또한 역할 놀이(Role Play)를 통해 그 말을 연출해 본다면 그 학습 효율은 크게 높아질 것이다. 요컨대 모든 감각 기관을 총동원해서 학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하겠는데 Hellen Keller 가 2개월에 600개의 단어를 기억하고, 하루에 Alphabet 26 문자를 다 기억하는 초인적 능력을 발휘했던 것도, 눈, 귀, 입 이외의 모든 건전한 감각 기관을 총동원하여 학습한 결과 그녀의 운동 신경이 기억 중추를 정상적으로 자극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대뇌 생리학자 시나가와 요시아(品川嘉也) 교수는 지적한다. 따라서 Vester 교수의 이론은 모든 감각 경로를 이용해서 교육하는 상호 작용식 다중 매체 이용 프로그램의 확고한 이론적 뒷받침이 된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영상을 많이 이용하거나 Vester 도 영상이 주는 학습 효과가 가장 높다고 했다. Freud 도 영상(image)의 중요성과 효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고 과정이 시각적 이미지로 전환됨으로써 의식화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의 경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미지로 생각하는 것이 언어로 생각하는 것보다 존재론적으로나 계통 발생적으로 더 오래된 것이며 무의식의 과정에 더 가깝다.'



상호 작용식 멀티미디어 교육의 위력과 그 성공 사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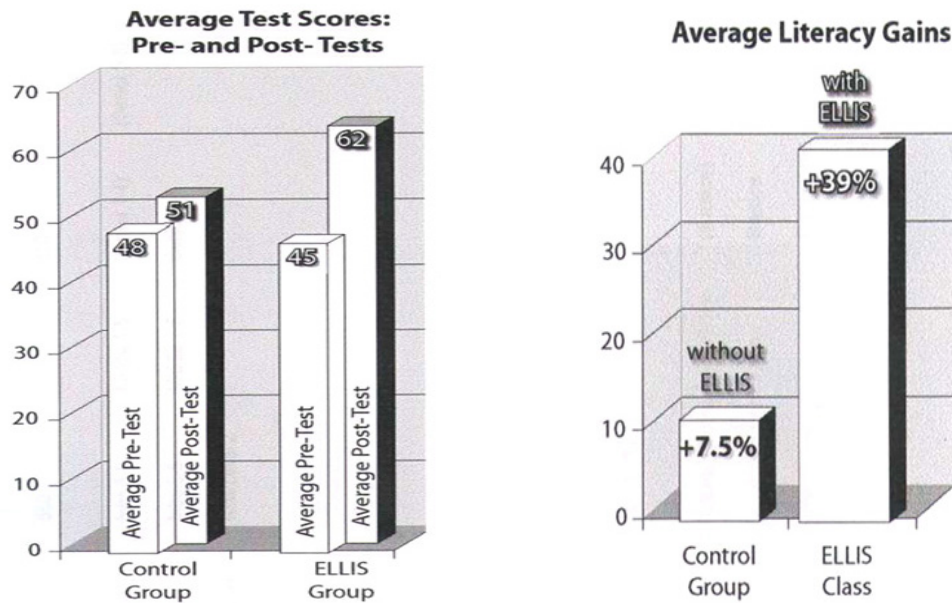
Malaysia University 에서는 Karen Yeok-Hwa Nge 교수와 Keng-Soon Soo 교수가 Interactive Multimedia Program 의 효능에 관하여 주목할 만한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이 실험 보고에서는, Institutional TOEFL 재료를 영어 교사의 직접 지도를 받은 전통적 학습 집단과 ELLIS program 만을 자습한 CALL 집단을 아래 표와 같이 비교하고 있다:



위표에 보듯이, CALL (ELLIS) 집단의 학생들이 전통적 수업 집단보다 TOEFL 시험 득점률은 50%나 더 높았고, 학습 시간도 31%나 절감되었으며 (11 주 대 16 주), 교육 비용을 4 년 기간으로 추산해 보니 80%나 절감되는 효과를 나타냈다. ELLIS program 이 TOEFL 과 상호 관련시켜 만들어진 점이 있지만 TOEFL 문제 자체로 영어 교사의 직접지도를 받은 집단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것은 명백히 학습방법의 차이 즉 Interactive Multimedia program 의 탁월한 효율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이 실험 결과는 TOEFL 시험 준비에는 TOEFL 시험 자체의 시험 전략 터득에 못지않게 영어의 전반적인 실력 향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상호작용식 멀티미디어 영어교육의 선구자인 ELLIS, Inc.에서 최근에 발표한 조사 보고서 '**Applied Research in ELLIS**'에는 상호작용식 멀티미디어 영어교육의 이론적 근거와 성공사례가 나와 있다.

Chicago Area Public Schools 의 여러 학교에서 2003-2004 년에 175 명의 6-10 세 영어 학습자를 선발하여 그들을 ELLIS Experimental Group 과 Non-ELLIS Control Group 으로 나누어 4 개월 과정의 영어교육을 실시한 결과 아래 도표와 같이 현격한 성취도의 차이를 나타냈다. ELLIS program 으로 학습한 학생들은 불과 4 개월간에 전통적 방법으로 교육을 받은 Non-ELLIS Group 에 비해 **5.2 배**의 평균 성취도(Average Literacy Gain)를 나타냈다.



컴퓨터를 이용한 교육과 연구의 유효성(Effectiveness of Computer-Assisted Instruction & Research)

영어 교육 전문가들의 실험 교육과 연구를 소개한 전기 'Applied Research in ELLIS'에는 그 장점으로써 다음 7 가지가 열거되어 있다:

- **시간 절약:** 목표 언어기능의 숙달에 시간이 덜 든다(Kulik, Bangert & Williams, 1983).
- **자율 학습 시간의 극적인 증가:** 2 년의 조사 결과 컴퓨터로 과제를 수행하는 학생들의 자율 학습시간은 재래식 방법으로 공부하는 학생들보다 평균 20 시간 이상 더 증가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원하는 학습속도로 학습활동을 선택할 수 있고 즉각적인 feedback 을 받기 때문이다(Van Dusen and Worther, 1995).
- **동기의 증가:** California 의 Center for Research, Evaluation & Training 과 Apple 사의 3 년에 걸친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은 과학 기술에 매력을 느껴 컴퓨터 사용에 대한 동기가 매우 강하다(Guthrie & Richardson, 1995). 동기의 증가는 오류 교정의 용이성, 사적 분위기, 환경의 능동적 제어, 각자의 보조(步調)에 맞는 학습 등에서 나온다(Underwood & Brown, 1999). 미국 국회 산하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의 보고서에 따르면, 동기의 유발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기인한다: 컴퓨터 기술은 1) "교과서나 재래식 학습 도구보다 더 매력적인 환경과 방법으로 학습 내용을 제시하고 학생들을 더 직접적으로 학습 활동에 끌어들이기 때문에 학습을 자극하는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다"(US Congress,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1995, 65). 2) 상호작용적 능력(interactive capacity)을 갖고 있다. 3) 창의적 활동과 다른 사람들과의 협동이 필요한 학습 활동에 참여케 할 수 있다. 이 문제에 관한 연구 보고서들의 광범한 검토 결과(Cotton, 1992)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컴퓨터 이용 교육은 다음 항목들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를 개선했다: 1) 학습자의 자화상 2) 교육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문제 3) 컴퓨터 전반 4) 학습 과목 5) 교습의 질 6) 학교 전반. 또한 컴퓨터 이용 교육은 개인의 능력을 발휘, 출석률, 친사회적 자세 등에서도 더 높은 수준의 향상을 나타냈다(Cotton, 1992). 1990-1994 년에 실시된 176 개의 조사에서도 컴퓨터 이용 학습자들의 학문과 자기자신에 대한 자세가 적극적으로 개선되었음이 밝혀졌다(Sivin-Kachala & Bialo, 1994).
- **멀티미디어의 적용:** 영상(映像 video)의 사용이 탁월한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Balatova, 1994). 또한 언어학습에는 computer feedback 의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도 밝혀졌다(Batiano, 1992; Van der Linden, 1993). 어휘의 학습(Liu and Reed, 1995)과 listening comprehension(Brett, 1997)에도 multimedia 의 효과가 탁월하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멀티미디어 시청(視聽) 환경에서는 언어 학습의 효과가 현저하게 개선되는 것이 발견되었다(Brett, 1998). Mann(1995)과 Huan & Eskey(2000)는 정보를 음(音)으로 제시하면 멀티미디어 환경이 탁월한 효과를 낳는다고 보고했다. 학습자의 학습 양식(learning style)에 관계 없이, 컴퓨터상에서 어휘의 번역에 접할 때 학습자는 더 효과적으로 어휘를 학습하고 기억하는 것이 밝혀졌다(Grace, 1998). 음운 인식(音韻認識)과 어휘의 확인에도 컴퓨터의 이용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MacArthur et al., 1995, 1991a, 1991b).
- **타 교육혁신 방안과의 효율 비교:** 최근에 발표된 500 개의 조사 연구의 검토에서도 학습자는 컴퓨터-기반 학습에서 재래식 학습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운다는 것이 밝혀졌다(Kulik, 1994, as cited in Grégoire, Bracewell, and Laferrière, 1996). 즉독 단어 인식(即讀單語認識 sight word recognition) 학습의 평가에서도 컴퓨터 이용 학습이 재래의 어느 학습 방식보다도 효과가 크다는 것이 입증되었다(Kulick & Kulick, 1991).
- **상호작용성(相互作用性)과 비선형 형식(非線形形式):** Barron 과 Goldman (1994)은 통합적인 interactive multimedia 가 수동적으로 시청되는 선형적(線形的)인 비디오 테이프보다 더 풍부한 정보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며 분석과 조사 연구에 더 효율적인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통합적인 정보의 연계(連繫) 방식을 사용하면 주제를 더 다각적인 시각에서 검토할 수 있고 그 보존과 전달도 촉진된다는 것도 밝혀졌다.
- **컴퓨터 사용 능력/ 디지털 분수령:** 미국 의회의 기술평가처(The US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에서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는 학생들이 미래의 학문적, 직업적 생애에 대비하기 위해서 컴퓨터의 사용에 능숙해지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기술이 낙후된 환경의 저소득층 자녀들이 기술 중심세계에서 디지털 분수령의 간격을 좁히는 데 도움을 준다고 지적하고 있다(US Congress,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1995).

Multimedia & Videodisc Monitor 의 발행인 Rockley L. Miller 는 상호작용식 멀티미디어 프로그램의 실익(實益)으로서 다음 10 가지를 들고 있다:

1. **학습 시간의 절감(Reduced Learning Time):** 그 요인은 다음과 같다:
 - 자신의 능력에 맞는 방법과 진도로 과제를 수행하려고 취약한 분야에 학습시간을 집중 배정한다.
 - 시청각 자료와 설명이 결합되어 있어 지식과 정보가 가장 이해하기 쉽게 전달된다.
 - 즉각적인 상호작용과 피드백으로 내용을 효율적으로 이해하고 복습하게 된다.
 - 학습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각자에게 가장 알맞은 학습 양식을 적용할 수 있다.
2. **교육비의 절감(Reduced cost)**
3. **교육의 일관성(Instructional consistency)**
4. **개인적 자유(Privacy)**
5. **학습 내용의 정통(精通) (Mastery of learning)**
6. **기억 효과의 상승(Increased retention)**
7. **안전성의 향상(Increased safety)**
8. **학습 의욕의 증대(Increased motivation)**
9. **양질의 교육의 접근 증가(Increased access)**
10. **상호 작용 학습의 향락(Learners enjoy interactive learning)**

위와 같이 Interactive Multimedia 언어교육의 실익을 전문가들의 연구를 인용하면서 자세히 소개하는 이유는 정부 당국이나 교육 기관이나 학부모들이 그 실익을 너무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자녀들의 영어 교육에 천문학적인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고 이것이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고 있는데도 말이다. 영어를 잘 하겠다고 혀를 길게 뽑아내는 수술을 하는가 하면, 1 개월의 해외 영어연수비를 500 만원씩이나 들어가면서 자녀들을 외국에 보내는 학부모들이 있고, 영어 교육 때문에 기러기 아빠들이 양산되고 있는 데도, 이렇게 학습 효과가 탁월하고 학습 시간이 단축되며, 교육비가 절감되는 Interactive Multimedia 언어 학습 및 교수법을 이용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길을 두고 뒤편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 보급률 세계 제 1 위의 인터넷 강국에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필자는 한국인에게 적합한 Interactive Multimedia 영어 교재가 없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Interactive Multimedia 교재는 한국인에게 그다지 효과가 없는데도 그 값이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Paper-based TOEFL 의 원고를 Interactive Multimedia Program 으로 전환함으로써 그 장점을 이용하는 동시에 재래식 교육으로는 구현할 수 없었던 언어 교수법상의 탁월한 이론과 접근법을 최대한으로 반영시켜 보려고 했던 것이다.

이름뿐인 Interactive Multimedia Language Program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다. Interactive Multimedia Language Program 이란 이름이 붙어 있다고 해서 모두 위에서 설명한 교육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Computer Program 은 GIGO(Garbage-In, Garbage-Out)의 속성을 지녔다. 쓰레기를 입력하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뜻이다. PBT TOEFL 이 CBT 로 바뀌자 재빠르게 CBT TOEFL 시험 준비서란 제목을 달고 많은 TOEFL 시험 준비서가 쏟아져 나왔다. 거의 모든 CBT TOEFL 신간을 사서 검토해 보니 형식만 CBT 출제 방식에 맞춰 엮어놓았을 뿐 수험자들의 영어 학습에 크게 도움을 줄만한 학습 자료는 별로 없었다. iBT TOEFL 이 발표되자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출제 방식이 어떻게 바뀌든, 영어 실력이 없는 사람이 어떤 형식의 시험에서든 좋은 성적을 얻을 수도 없거니와 부실한 학습 자료와 신뢰도나 타당도가 낮은 연습 문제들을 iBT TOEFL 출제 방식으로 꾸며 놓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iBT TOEFL 시험 준비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영어 실력을 올려 주는 교재는 거기에 담긴 **내용**이지 그것을 담은 **형식**이 아니다. iBT TOEFL 의 출제 방식에 익숙해지는 최선의 방법은 ETS 의 Website 를 방문하여 무료로 제공하는 Sample Questions 를 열심히 풀어 보고 제시된 답과 비교해 보는 것이다. 그것으로 iBT TOEFL 시험 전략은 충분하다. 그 다음에는 각자에게 가장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영어 교재나 TOEFL 시험 준비서를 골라서 열심히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 Skills 를 향상시켜야 할 것이며 평소에 끊임 없이 어휘력과 문법 실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영어 교수법 전문가, 영어 교재 저술 전문가, 컴퓨터 프로그램 전문가의 공동 노력으로 만들어진 교재만이 이러한 언어 기능(言語技能)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만들어진 교재는 선진 외국에서도 찾아내기 힘든 실정이다. Interactive Multimedia Program 으로 개발된 외국 교재들도 대부분이 영어 교수법과 영어 교재의 저술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의 참여 없이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멋대로 만들어 낸 졸작들이 대부분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비싼 돈을 들여서 사들여 놓고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 사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외국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거액을 들여 사들여 놓고 사장시키고 있는 기관들도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재래식의 교실 수업이나 비싼 영어 원어민의 과외 지도보다 교재만 제대로 선택하면 Interactive Multimedia Program 이 언어교육에는 훨씬 효과가 크고 비용이 덜 들며 시간이 절약된다는 사실이다. 간혹 거액의 돈을 컴퓨터 관련 시설에 투자해 놓은 기관을 볼 수는 있으나 그 비싼 시설에는 우수한 교육 software 가 없다. 형식만 갖추어 놓고 알맹이가 없는 것이다. 필자의 실험 교육 과정에서는 이 사실이 속속 입증되고 있고 이것을 목격한 외국인 영어 교수들은 여기는 천재들만 모인 곳이야고 놀라지만 필자의 실험 교육 과정에 천재를 받아들인 적은 없다. 그들의 천재성 발휘는 ELLIS 를 위시하여 필자가 개발해 쓰고 있는 Interactive Multimedia Programs 의 덕택이지 고가의 컴퓨터 관련 시설 때문이 아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탁월한 교수법을 구현한 교육 software 가 쥐고 있다.

영어 학습에서는 좌뇌(左腦)보다 우뇌(右腦)를 많이 써야 큰 성과를 올릴 수 있다.

전통적인 영어학습법은 대체적으로 좌뇌 중심으로 되어 있다. 그것도 실전 연습은 등한히 한 채 교사의 강의에만 매달리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별로 효과가 없는 것이다. 근래에 널리 알려진 탁월한 언어학습법은 좌뇌 못지않게 우뇌를 많이 쓰는 학습법이다. Interactive Multimedia 를 이용하는 학습법은 물론, Whole Language, Total Physical Response(TPR), Leslie Hart 의 Proster Theory, Suggestopedia, Desuggestopedia, Krashen 의 Affective Filter Hypothesis 와 Pleasure Hypothesis concept 등도 대뇌생리학의 측면에서 보면 우뇌에 주안점을 둔 접근법이다. Troy 의 유적을 발견한 독일의 고고학자 Heinrich Schliemann 은 단시일에 수많은 외국어를 정복한 것으로도 유명한데, 그의 외국어학습법이 바로 이 책에 도입한 우뇌적 학습법이었다. 불가리아의 G. Lozanov 가 개발한 Suggestopedia 는 Baroque 음악의 아리아와 J. H. Schultz 의 Autogenic Training 을 이용하여 우뇌를 활성화하고 이미지와 연관시키면서 언어의 proster 를 두뇌에 구축하는 우뇌적 학습법이다. 대뇌생리학자 시나가와요시아(品川嘉也) 교수는 우뇌를 통해서 학습할 때만이 언어 학습은 큰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생물은 인간뿐이고 인간에 가장 가깝다는 영장류의 원숭이도 언어는 습득하지 못한다. 인간이나 원숭이나 대뇌는 거의 같은 형태의 좌우 양반구로 나누어져 있고, 수족(手足)과 이목구비(耳目口鼻)가 연결되어 있는 뇌(腦)는 각기 그 반대쪽인데, 인간만이 좌우 양뇌가 1 억 개 이상의 신경으로 구성된 뇌량(腦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에 반하여 원숭이의 뇌는 연결이 지극히 빈약하여 대뇌 양반구가 거의 독립되어 있다. 어떤 대뇌생리학자는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다. 침팬지를 의자에 묶어놓고 손만을 움직일 수 있게 한 후 책상 위에 크기가 다른 물건들을 여러 개 쌓아 놓고 왼 눈을 가린 다음 미끼를 이용하여 그 물건들을 큰 것부터 크기의 순서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배열하도록 유도했다. 그런 다음 오른쪽 눈을 가리고 작은 물건부터 크기의 순서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배열하도록 유도했다. 마지막에는 반창고를 풀고 두 눈으로 이 작업을 시켰더니 원숭이의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이 싸움을 벌였다. 인간의 뇌는 좌우 양반구가 뇌량으로 연결되어 있어 학습과 기억에서 서로 협업(協業)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인간의 좌뇌는 언어뇌라고 해서 주로 우반신(右半身)의 신경을 제어하면서 디지털 방식으로 언어와 수리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논리적인 기능을 관장하고, 우반구(右半球)의 뇌는 소위 음악뇌(音樂腦) 또는 정서뇌(情緒腦)라고 해서 좌반신(左半身)의 신경을 제어(制御)하면서 주로 아날로그 방식으로 공간적(空間的), 유형적(類型的), 도형적(圖形的), 회화적(繪畫的), 음악적(音樂的) 인식과, 운동 신경(運動神經), 반사신경(反射神經), 직관력(直觀力), 상상력(想像力), 감정(感情)의 작용 등을 관장한다. 따라서 언어 학습에서도 우뇌(右腦)는 특정 언어 특유의 pattern 을 top-down 방식으로 인식하여 아날로그적으로 우뇌에 기억시키고, 좌뇌는 우뇌에 입력된 pattern 을 뇌량을 통해 전달받아 좌뇌에 입력된 세부적인 정보를 디지털 방식으로 분석 정리하여 기억한다. 이와 같이 좌우 양뇌가 분업과 협업을 통해 사물을 인식하고 기억하며 보존하고 재생해야 언어의 학습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런데 좌뇌는 세부적인 사항과 추상적인 기호까지 인식하고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기억과 저장에 한계가 있지만, 우뇌는 윤곽적인 pattern 만을 인식하고 기억하기 때문에 무한대의 인식과 저장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우뇌는 오관(五官)으로 느낄 수 있는 이미지나 소리 등을 아날로그 방식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인식이 용이하고 기억이 선명하여 탁월한 기명(記銘)과 재생(再生)의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좌뇌의 디지털적인 작업을 우뇌가 도와 주는 학습법이 좌뇌에 치중된 학습법보다 훨씬 큰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뇌의 기능을 외면하고, 좌뇌만을 동원하여 단어, 철자, 발음, 문법 등을 따로 분리해서 하는 학습은 별로 효과가 없는 것이다. 이런 방식의 학습은 지루하기도 하여 Krashen 과 Leslie Hart 가 주장하듯이 학습효과도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다.

9 년여에 걸친 어려운 작업을 통해 수많은 수정 증보와 실험 교육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Ronald E. Feare 교수, 이 교재의 기획, 편집, 번역, 교정에 참여한 이종국 편집장과 Computer Programming 을 맡아 오랜 동안 헌신적 노력을 기울인 김형환 기획실장에게 충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장기간의 개발 과정에서 자금 부족이 생길 때마다 지원을 아끼지 않은 이미현 변호사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이 교재가 햇볕을 볼 수 없었을 것이다. 참으로 고맙기 그지 없는 일이다. 또 이 교재의 출판을 위해 흔쾌히 개발비를 용자해 준 국민은행 여의도 지점과 이 준비서의 발간을 위해 만단을 무릅쓰고 심혈을 기울여 온 (주)외국어 연수사 김인순 사장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

이 교재가 TOEFL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물론 상급 수준의 영어 학습자들과 기타의 영어 시험을

준비 중인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총심으로 기대하며, 우리나라에도 하루 속히 더 효과적인 영어 교수법이 보급되어 영어 공부 때문에 시간과 정력을 과도하게 소비하면서도 TOEFL 시험에서 세계 99위의 수치스러운 위치에 머무르는 일이 없게 될 날을 기대해 본다.

2005년 11월 30일

발행인 겸 역주자 대표 이영재